

폭염 장기화에 생활용수 수요 ‘깡충’

상수도 하루 공급량 전년보다 9% 증가… 시설용량의 92%
일부 지역 단수·저수압 불편… 도, 비상급수대책반 가동

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올해 제주지역 물 사용량이 가장 무더웠던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상수도 하루 공급량은 전년보다 9% 증가한 47만5154㎥다.

이는 정수장 17곳과 지하수 299공 등 도내 전체 상수도 하루 기준 시설 용량(51만5498㎥)의 92%에 달한다.

제주도는 폭염 장기화로 생활용수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산간 지역 주요 수원인 아승정수장상의 저수율은 지난 4일 기준 저수용량 대비 70% 수준을 유

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정 노후화에 따른 누수 등의 문제로 일부 지역에서 단수와 저수압 현상 등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양 행정시,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함께 급수 차질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접수한 상수도 민원 112건 가운데 75건을 조치했고, 나머지 37건에 대해선 조치 중이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급수 안정화를 위해 예비 지하수 90공 가운데 70공(하루 8만276㎥)을 추가로 가동하고 있으며, 지난달 20일

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상수도부장을 총괄로 4개 반 54명 규모의 비상급수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 노후된 관정이 묻혀 있어 물 공급이 불안정한 급수 취약지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읍면동별 현황 조사를 진행한 뒤 내년 상반기쯤 상수도 시설 확충 공사에 나설 예정이다.

김형태 상하수도본부장은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생활 속 물 절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제주도 또한 불편함 없이 생활용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수나 저수압 등 급수 민원은 상하수도 민원 대표번호(전화 064-121)로 연락하면 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흙먼지 날리며… 폭염 속 밭갈이 6일 제주시 애월읍 한 농경지에서 농민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트랙터로 밭을 갈아엎고 있다. 강희만기자

서귀포시 ‘문턱 없는 경사로’ 20곳 설치 완료 식당·편의점 등 장애인·노인 이동약자 접근성 제고

서귀포시가 식당, 편의점, 미용실 등 소규모 공공이용시설에 ‘문턱 없는 경사로’를 설치, 장애인과 노인 등 이동약자들의 시설 접근성을 제고했다.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는 이동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

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지역 내 소규모 공공이용시설 20곳을 대상으로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앞서 2023년 1000만원을 투입해 20곳에 경사로를 설치했다. 이어 올해 예산 1100여만원을 들여

센터와 협력해 지원 대상 건축물 선정 및 동의, 현장실사, 맞춤형 경사로 제작 설치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최근 식당 16곳, 편의점 2곳, 미용실 2곳 등 20개 시설에 맞춤형 경사로 시공을 완료했다.

센터는 경사로 설치 완료에 그치지 않고, 오는 9월 21일 실제 장애인 등이 참여하는 ‘경사로 사용성 평가’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백금탁기자

청년 성장 넘어 지역공동체를 잇다

제주로 이주하는 도민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이웃과 관계를 맺는 일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추진하는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조성사업’은 단순한 정착 지원을 넘어 이주민과 원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한라일보는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조성사업에 선정된 8개 단체와 사업을 차례로 소개하며 이주민과 원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다양한 모습과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가능성을 조명한다.



<I> 사단법인 청년제주

사단법인 청년제주가 장학사업과 지역공동체 활동,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제주 청년들의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대표적인 청년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0년 창립된 청년제주는 ‘창의·화합·기부’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청년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 청년들이 지역 발전의 주체로 성장하고 나눔과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설립 취지다.

청년제주는 청년 인재 육성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장학사업을 비롯해 논문 공모전, 문화체험, 사회공헌 활동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대표 사업인 청년 장학사업은 지역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장학생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청년제주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논문 공모전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주의 미래를 주제로 관광·환경·문화·청년



사단법인 청년제주(이사장 신주원)는 지난 2022년 5월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에서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2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사회공헌사업으로 인재 육성·지역 발전 견인 정착주민·원주민 교류 확대… 지역사회 통합 지원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공모해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제주 도일주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제주 문화유산과 자연을 탐방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있다.

이와 함께 다문화 이해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에도 힘쓰고 있다. 다문화가정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청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마음챙김 프로그램과 마음건강지도사 양성, 심리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하다. 연말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천사들의 크리스마스’ 나눔행사를 비롯해 봉사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이어가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이방인에서 이웃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 정착주민과 기존 주민 간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적응과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주원 이사장은 “청년들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 주체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대로그기자

<제작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 최초
청각학 박사 학위 취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청각학)

원장 강 동 우

-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교수
- 전문청능사 언어재활사
- 한국청능사협회 상임이사
-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운영이사
-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정회원

와이덱스보청기

강동우 청각센터

청각학 박사가 직접 상담하는 청각전문센터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관리로
더 잘 듣고, 더 편안한 일상을 함께합니다.

개인마다 다른 청력 상태와 생활환경을 고려한 정확한 평가와 맞춤 상담,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여러분의 소중한 청력을 지켜드립니다.

청력 평가

난청 상담

보청기 상담

청능재활

지속적인 사후관리

강동우청각센터의 차별성

청각학 박사 직접 상담	체계적인 피팅 및 관리 시스템
최신 청력평가 장비 운영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신뢰
개인별 청취환경 분석	검증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제주시청

CGV

광양사거리

← 화북 무료주차 가능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다이소 옆

청각의 가치를 높여
더 나은 삶을 함께합니다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 755. 1005

홈페이지
자세히 보기

hearingjeju.com